

학벌지상주의와 문화자본



마 정 미
문화평론가
neosperso@naver.com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재능있는 리플리씨(The Talented Mr. Ripley)』라는 소설은 두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다. 첫 번째는 알랭 들롱이 분한 <태양은 가득히>, 두 번째는 맷 데이먼이 연기한 <재능있는 리플리씨>다. <재능있는 리플리씨>는 주인공 톰 리플리가 프린스턴대학 출신이라는 거짓말로 인해 점점 거짓의 늪에 빠지고 결국 대부호의 아들 디키 그린리프를 살해하고 그의 행세를 하게 되는 이야기다. <태양은 가득히>에서는 리플리의 범죄 행각이 막판에 탄로나는 반면 <재능있는 리플리씨>에서는 완전 범죄로 끝난다. 원작 소설의 결말은 후자 쪽인데, 이후 5편의 연작소설에서 리플리는 더욱 대담한 거짓말과 범죄의 세계에서 산다. 아마 작가는 현실에서의 정의실현에 대해 대단히 회의적인 모양이다.

인사성이 좋아야 성공한다

영화같은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 몇몇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학력을 커밍아웃하게 만든 신정아 동국대 교수 사태는 실력보다 간판과 배경을 따지는 우리 사회 풍토, 인맥과 인간관계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신정아씨의 대담한 사기행각도 놀랍지만 정상적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사회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멸절된 관료들에 의해 벌어졌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다.

그의 사기행각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다. 어떤 막후 사정이 있는지 도무지 오리무중인 동국대 최고 책임자들과, 이미 진즉부터 정치조직화 되었다고 비판받아 온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허술한, 아니 어찌면 명민한 커백선의 결과다. 이 모든 것이 자칫 그대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직상승은
자수성가보다는 사기나 불법, 혹은 스캔들과 연계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로 용인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애초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유명 미술관의 수석 큐레이터였으며 서울대 중퇴, 캔사스대, MBA 출신에, 명문 예일대학의 박사학위까지 받은 재능있는 젊은 이 여인은 동국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고 뒤이어 광주 비엔날레의 감독까지 잘 치러냈어야 했다. 승승장구, 매혹의 질주가 아닐 수 없다. 위인전이나 자서전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모두 가짜란다. 동국대는 학위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고 신 교수를 특별 채용했으며 학위 위조에 대한 몇 번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매번 이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비호했다. 아마 학교 측에서는 신정아씨보다는 그와 관계된 학교 고위층을 보호하려는 것이겠지만, 때문에 끊임없이 신정아씨의 배후에 유력 인사가 있다는 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신정아씨의 배경이 궁금하다. 왜냐하면 애초에 언론에 떠들어댔듯이 BMW를 타고 다니고 명품만을 걸친 이 젊고 아리따운 여성이 재력과 권력을 가진 집안의 딸이라면 가짜학위로 행세했을 것 같지 않다.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했을 것이다. 물론

또 다른 부도덕한 방법이 있겠지만. 또 하나의 가정, 만약 대단한 집안 출신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출발한 경우 이야기는 훨씬 드라마틱하다. 신정아씨는 그야말로 누구말대로 눈부신 수직상승을 이룬 신데렐라가 된다. 냉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수직상승은 자수성가보다는 사기나 불법, 혹은 스캔들과 연계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신정아씨는 '안동 부잣집 딸'로 소문이 파다할 만큼 스스로 집안 경제력을 자랑했다고 한다. 현금만을 쓰고, 해외여행 후 귀국길엔 주변사람들에게 에르메스 빅타이, 가방 등을 골잘 선물하는 '에르메스의 여인'이었다고 한다. 실지로 부자이건 아니건간에 신정아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상류층의 아버투스를 흉내내고 있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후광효과로 그녀를 빛나게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녀는 타고난 언변과 옛된 미모로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윗사람들을 잘 모셨기 때문이라고 한다. 작가와 기자를 비롯해 관계자의 접대에도 능했고, 탁월한 인맥관리로 특히 중진 원로 미술작가들의

**사실 이번 사태는 위선과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한국 지식 사회의 속물성에 대한 한판의 조롱이다.
간판을 중시하는 지식사회와 그 관료적 시스템을 마음껏 유린했다.**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처세술의 면모를 보자면 화려한 경력의 출발점부터가 심상치 않다. 금호미술관에 통역안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간 신정아씨는 기존 큐레이터가 미술관을 그만둔 사이 덜컥 큐레이터로 기용됐다. 아무 경력도 없는 그가 발탁된 것은 순전히 윗사람의 눈에 든 덕분이다. 원칙대로라면 큐레이터로서의 경력과 학문적 이력으로 실력을 평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재벌의 안주인이 운영하는 사설미술관에서는 오너의 결정에 모든 절차가 생략됐다. 그 뒤 승승장구한 것도 오로지 인맥 관리에 성공한 덕분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박사와 학문사대주의

“그는 미국 유명대 ‘졸업장’ 이 곧 말이요 진리임을 보여줬다. 대한민국 학계나 미술계에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었다. 졸업장이었다. 가만있어도 모두가 그 이름만 들으면 앞드려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그 광채로 빛나는 아이비리그 졸업장이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 후광에 모두가 눈멀고 귀

멀었다. ……그를 이제 전시기획자로 부르지 마라. 그야말로 예술가다. 진정한 아티스트다. 이걸 단순 ‘사기’가 아니다. 진짜 예술이다. ‘학벌’에 목맨 우리 사회를 풍자하는 한 편의 ‘생쇼’다. 미술계와 학계가 총출동한 한 편의 대형쇼다. 멋지다, 신정아. 잘했다, 신정아.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다”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조은미 기자의 이 기사는 한판 쇼에 넘어간 한국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위선과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한국 지식 사회의 속물성에 대한 한판의 조롱이다. 간판을 중시하는 지식사회와 그 관료적 시스템을 마음껏 유린했다. 사설 미술관뿐 아니라 유수의 대학, 아시아 최고를 지향한다는 비엔날레까지.

동국대의 어처구니없는 임용절차는 우리 대학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외국 유명 대학 출신을 선호하는 풍토와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이런 해프닝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통 외국에서 취득한 석, 박사 학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하게

미국박사에 대한 집착은 교육부의 대학종합평가에서 기인한다.

대학의 질과 교수의 능력, 연구실적의 판단기준이

해외 우수저널의 게재 편수이다 보니, 영어권 학위자를 선호하게 된다.

되어 있고 이것이 유일한 검증시스템이다. 언론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외 학위 검증시스템을 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사실은 검증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해외학위를 진짜라고 검증 받아도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그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검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박사학위만 있으면 그를 신뢰하는 풍토가 문제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우수대학에서는 자기 학교 출신 박사가 원서를 내면 비웃는다. 외국학위도 아닌데 경쟁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교수임용과정에서는 '외국 박사' 그중에서도 '미국박사' 라는 간판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대학이 정말 교수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관심이 있다면 지원자가 단지 외국 명문 대학의 박사라는 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수 임용심사기준의 내부평점표에 준하면 외국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은 국내 학위를 지닌 다른 지원자보다 구조적으로 우월한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 외국저널에 실린 논문 한편이 국내학술지에 실린 논문 10편보다 우대받고, 미국박사학위를 가지

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논문 한편 없이 대학에 임용되는 사례도 많다. 나아가 어느 대학은 '국내박사들만 지원해서' 임용절차를 취소해버리기도 한다.

미국박사에 대한 집착은 교육부의 대학종합평가에서 기인한다. 대학의 질과 교수의 능력, 연구실적의 판단기준이 해외 우수저널의 게재 편수이다 보니, 영어권 학위자를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우수저널 논문게재에 대한 각서를 쓰는 조건으로 임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원어강의 가능한 자'를 옵션으로 달고 있다. 그런데 이 원어는 영어에 국한되는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온 지원자에게 공개강의때 영어로 강의해보라고 주문하기도 한다. 신중아씨는 우리사회의 시스템에서 '영어능력과 외국 대학 학위'가 최고의 무기임을 일찍이 간파하고, 유창한 영어와 가짜 학위로 마침내 정상에 등극한 것이다.

영어와 문화자본

사회적 쇼크와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주요기사로 빈번하게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능력과 성품으로 간주되는 영어실력은 사실상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체화된 문화자본이자 영어실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공적으로 능력을 획득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한다.

다루었는데, 대부분의 논조는 학벌지상주의를 비판하거나, 가짜 판치는 세상을 개탄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이들의 쇼크는 사회정의의 믿음이 붕괴된 쇼크로 보이지 않는다. 그들이 분개하는 것은 그들이 신봉하는 미국학위를 사기치고 다니는 짝퉁에 대한 분노다. 학벌사회에서 학벌을 참칭한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목인 것이다. 오히려 학벌사회의 공고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다수의 대학은 그렇지 않겠지만(과연 그런가?) 몇몇 대학이 채용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형식적으로는 공채지만, '모르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다'가 일반론이고 학연, 지연에 따라 이미 내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립대학교인 경우는 재단 쪽 인사들의 입김이 당락을 좌우하기도 한다. 학과에서는 대부분 자신의 학맥에서 사람을 추천받는다. 국내에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지식인들이 다수인데, 그들이 신입교수를 뽑을 때 미국 박사를 선호하고, 자신의 학맥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그들의 자녀 역시 일찌감치 미국에 보내고 자신은 기러기아빠 인생도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현재 지구촌 최대의 강국인 미국의

언어는 국제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과 비즈니스, 문화 콘텐츠에 통용되는 언어가 대부분 영어이다 보니 영어가 중요한 언어인 것은 사실이다. 그야말로 미국식 영어는 제국의 언어가 되었다. 제국의 언어를 배우고 제국의 학문을 이수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영어 광풍이 이는 것은 필연적이다. 영어가 출세의 지름길이고 영어 실력이 문화자본이 되는 상황이니 해외유학, 어학연수, 영어캠프, 영어유치원등 영어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라는 책에 의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영어라는 외국어의 정체는 그 심층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 그 자체와 맺어져 있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성공을 보장받는 능력과 성품으로 간주되는 영어실력은 사실상 부모의 경제적 자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체화된 문화자본이자 영어실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통해 공적으로 능력을 획득한 제도화된 문화자본이라고 한다. 안타깝지만 그다지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온 국민이 동의할만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숨 막히게 한다. (30)